인물·불교사·생명윤리… 분야·주제 '다채'

동국대 2019년 상반기 불교 박사학위는 (上)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총장 보광)에서 올해 상반기 불교 관련 박사가 14명이 배출됐다. 석사 학위자는 48명이 나왔다. 본지는 2회에 걸쳐 박사학위 논문을 정리해 기재한다.

'대승보살도' 만해의 사상 기반

철우 스님(대학원 선학과)의 '만해 한용운의 대승보살사상 연구'는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만해 스님의 일련의 활동들이 대승보살사상에 사상적 기저를 두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철우 스님은 만해는 대승보살사상은 사회실천 운동뿐 아니라 수행과 사상철학에서도 고찰된다고 봤다. 스님은 만해의 선수행관은 △선기에 따른 정진과 견성관 △임제의 할과 덕산의 방 △방편으로서의 화두선으로 요약했다. 또한 만해 선수행관의 특징으로 △유심론에 입각한 정신수양으로서의 선 △일체중생 실유불성의 견성관 △선교진흥 요문으로서의 선교회통사상으로 정리했다.

시대 변화를 정확하게 인지했던 만해는 △사사무애에 바탕한 진리관 △도생본지로서의 세계 평화론 △인본주의에 바탕한 범종교론의 구세의지를 통해 중생들을 구제하려 노력했다.

이같은 만해 스님의 의지는 〈불교대전〉, 〈조선불교유신론〉 등의 저서와 독립운동, 대중불교운동을 통해 나타난다.

철우 스님은 "만해 스님의 독립운동은 대승보살관에 입각한 인류평화운동"이라고 정의하며 "만해의 독립운동은 고통 받는 세상 속에 뛰어들어 온몸을 희생하며 이룬 독립운동과, 글로써 대중들에게 독립심을 일깨우며 일제에 대항한 운동이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됐다"고 설명했다.

포살은 어떻게 형성됐나

도문 스님(대학원 불교학과)의 '초기불교 교단의 포살 연구'는 고대 인도에서 시작된 포살이 어떻게 실행됐고 궁극적인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고찰한 논문이다.

스님에 따르면 포살은 고대 인도에서 브라만교의 종교 행사인 '우빠와사타(uposatha)'에서 유래됐으며 붓다 당시 자연스럽게 불교교단에도 도입됐다. 불교교단의 포살은 출가포살과 재가포살로 나눠 발전됐다. 출가포살은 '바라제목차의 암송', 재가포살은 '팔재계의 준수'이라는 독특하고 차별된 행사로 변화시켰다.

도문 스님은 계행은 열반을 지향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선법(善法)임을 분명히 했다. 바라제목차로써 계행을 구족하게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며, 화합을 실현하는 승가 행사가 바로 포살이라는 것이다.

스님은 "〈디가니까야〉의 '마하빠리닙바나 숫따'에서는 비구가 향상하고 쇠퇴하지 않는 법들로 칠불쇠퇴법이 설해지며 포살이 이를 실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포살은 청정과 화합을 실현하게 함으로써 비구가 법과 율에서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강조했다.

불살생 · 자비는 생태위기 대안

지현 스님(대학원 선학과)의 '선의 생명관과 실천윤리 연구'는 불살생과 자비는 생태위기의 환경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경전과 선어록, 불교설화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스님은 "모든 생명체와 세계의 존재 원리인 연기 법칙을 바탕으로 생명의 문제를 인간 이외의 존재로까지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모든 생명의 존귀함과 평등성에 대한 이해와 생명을 해치지 않는 불살생(不殺生)이 첫 번째의 윤리덕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전과 선어록에 나타난 부처님의 말씀과 선사들의 말씀은 자연과 더불어 공존한 흔적과 무정물에까지 생명력을 부여하는 폭넓은 인식을 담고 있어 전통적인 생태윤리 의식을 고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불교윤리의 최고 덕목은 '생명 존중'이며, 실천원리는 '자리이타행'임을 지현 스님은 분명히 했다. 또한 현 시대에 맞는 실천적 방안 모색도 주문했다.

스님은 "불교생명윤리는 전통적인 계와 율을 무조건 따를 것을 강요하기보다는 21세기적 윤리 환경에 부응하는 전략적 사고와 적절한 경전 해석과 적용을 통해 새롭게 정리해야 한다"면서 "과학 · 생명공학 · 윤리학과의 상호 회통과 융섭을 통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국유사 효선편의 불교적 의미

〈삼국유사〉는 고려후기 고승 일연 스님이 찬술한 역사서다. 국존(國尊)의 위치에 있던 일연 스님은 삼국의 정사에서 '빠진 이야기(有史)'를 저서를 통해 담아냈다. 〈삼국유사〉는 5권 9편목 138조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 주제에 맞는 사상과 설화들이 수록됐다. **명계환(대학원 불교학과)의 '인각 일연의 효선 사상 연구'**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효선' 편을 불교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앞선 연구들은 일연의 개인적 효행이나 고려시대의 불교적 효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하지만 명계환은 대승보살도의 실천과 완성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실천 덕목인 '회향(廻向)'이 효선편에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살이 둘이 아닌 이치(不二)를 펼쳐 깨달음에 이르는 〈화엄경〉의 '진여상 회향(眞如相廻向)'에 대해 주목했다.

명계환은 "효선편에서는 유교의 효와 불교의 효(善)를 통해 양자의 공존과 화합을 모색하며 하나로 나아가려고 하는 효행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서 "특히 효선 편에서는 출가문제로 야기되었던 유교의 비난에 대한 불교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신라의 '효선쌍미(孝善雙美: 유교의 효와 불교의 선이 둘 다 아름답다)'의 효행 사례들을 담아 유교와 불교, 세간과 출세간의 공존과 조화를 모색했다"고 강조했다.

미얀마 불교의 모든 것을 살피다

정기선(대학원 불교학과)의 '미얀마의 불교 문화양상 연구'는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미얀마불교의 문화와 수행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핀 연구이다.

그에 따르면 11세기 중엽 버마의 평원을 차지했던 버간왕조는 하부 버마의 따톤으로부터 상좌부불교를 도입하여 미얀마 불교의 기틀을 세웠다. 군주들이 세운 "불탑과 사원들은 상상과 관념 속에서 존재하던 수미산을 지상에 구현된 실체적인 장소"로서 만들었으며, 현재까지 미얀마인들의 신심과 수행의 열망이 가득한 불국토를 상징하는 공간이 됐다.

정기선은 미얀마불교가 한국불교와 대비되는 특징으로 '일불의 불타관'을 들었다. 또한 두 번의 걸친 경전결집의 역사는 출가를 장려하는 문화를 만들었고, '공덕 추구의 불교'의 확립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정기선은 '공덕 추구의 불교'를 자리이타의 정신이 바탕에 형성된 행위로 봤다. 그는 "내가 지은 이 공덕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존재들과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사무량심(四無量心)의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불교수행의 한 방법"이라며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상좌부불교는 소승불교'라는 일반적인 관념을 신행적인 차원에서 간단히 해결한다"고 강조했다.

만해 스님 '심우장' 사적 지정된다

문화재청, 12일 지정예고
이봉창 의사 유물 문화재로


사적으로 지정 예고된 만해 스님의 주석처 서울 성북구 심우장 전경.

만해 스님의 마지막 주석처였던 '심우장'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항일독립 문화유산인 '만해 한용운 심우장'과 '이봉창 의사 선서문 및 유물'을 각각 사적 지정과 문화재 등록을 예고한다"고 2월 12일 밝혔다. 또한 '인제성당' 등 2건은 문화재로 등록했다.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 예고하는 서울 성북구의 '만해 한용운 심우장'은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이 1933년에 건립해 마지막까지 주석한 곳이다.

'심우도(尋牛圖)'에서 유래한 '심우'는 선불교에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나타내는 말이다. 심우장은 집의 좌향(坐向)을 총독부의 방향을 피하여 동북방향으로 잡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 한용운 선생의 독립의지를 엿볼 수 있다.

문화재청은 "독립운동 활동과 애국지사들과의 교류 등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면서 "전반적으로 원형이 잘 보존돼 있으며, 사적으로 지정되면 2017년 10월 등록문화재 제519호로 등록된 '구리 한용운 묘소'와 함께 항일독립운동 정신을 기릴 수 있는 뜻 깊은 장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등록문화재로 예고된 이봉창 의사(1900~1932)와 관련된 유물은 '이봉창 의사 선서문', 백범 김구에게 보낸 '이봉창 의사 친필 편지와 봉투', '이봉창 의사 의거자금 송금증서' 등 3건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만해 한용운 심우장'과 '이봉창 의사 선서문 및 유물'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지정 · 등록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문아카데미 연수생 모집

오는 2월 22일까지 기본 · 심화과정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 한문아카데미에서 2019년도 1학기 '심화과정'과 '기본과정'의 연수생을 모집한다.

4학기 동안 30학점을 이수하는 심화과정은 2019년 1학기부터 1과목 증설돼 총 5과목이 운영된다. 강의는 △불조역대통재2(월, 박해당) △능엄경(화, 선암 스님) △불가문집 번역연습(수, 성태용) △한시특강(목, 이상하) △서장(금, 문광스님)이 진행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문아카데미는 기본과정 수강생도 모집한다. 학기당 16주 강의가 진행되는 기본과정은 4학기 동안 30학점을 이수하여 수료하는 '선발연수생'과 한 과목씩 선택해 수강하는 '일반연수생'으로 나뉜다. 강의는 △보조법어 수심결(월, 선암 스님) △금강경 삼가(화, 금천 스님) △범어-한문 경전강독3(수, 현진 스님) △기초한문법(목, 박영록) △임제록(금, 박영록) 등이 이뤄진다. 강의 시간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모두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이다.

아울러 지난해 1학기부터 시작한 '산스크리트어 문법 스터디'는 올해에도 계속 이어진다. 불교 고전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번 스터디는 현진 스님의 법보시로 무료로 운영되며, 3월 6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된다.

원서 접수는 오는 2월 22일까지며,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의 선발연수생에 대한 면접 및 필기 전형은 2월 23일에 실시된다. 기본과정 선발연수생은 불교 및 한문불전 공부에 관심이 있는 4년제 대학 재학 이상 이면 지원 가능하며 정원은 30명이다. 심화과정 선발연수생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거나 그에 준하는 경력 및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필기고사 전형을 거쳐야 하며 정원은 10여 명이다.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의 선발연수생 수업료는 학기당 60만원이고, 기본과정 일반연수생 수업료는 과목당 20만원이다.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의 수강료는 기본과정은 선발연수생 42만원, 일반연수생 14만원, 심화과정 선발연수생 30만원이다. 조계종 스님의 경우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모두 선발연수생은 수강료가 면제된다.

신성민 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